■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41-372.
http://doi.org/10.17948/kcs.2022..97.341

늦게 발행된 동인지
—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장과 『백조』—

박현수(朴賢洙)*

목 차

1. 문제의 소재
2. 『백조』에 이르는 도정
3. 흑방에서 나온 첨단의 장정; 『백조』 1호
4. 발행인 명의와 검열의 문제; 『백조』 2호
5. 늦춰진 발행의 언저리; 『백조』 3호
6. 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장과 『백조』의 위상

국문초록

문학사적 서술에서 『백조』는 크게 두 가지로 규정된다. 하나가 『창조』, 『폐허』에 이어진 동인지라면 다른 하나는 '프로문학'으로 나아가는 문학적 경향의 온상이었다는 것이다. 두 규정 모두 사실이지만 발행 시기나 문학 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미진함 역시 존재한다. 박종화, 정백, 홍사용 등은 〈휘문고보〉에서 만나 문학에 뜻을 두게 되고, 이후 『서광』, 『문우』 등을 발표 공간으로 활동을 했다. 홍사용의 유고시로 발굴된 「푸른 언덕가으로」는 실제 홍사용이 「크다란집의찬밥」이라는 제목으로 『문우』에 발표한 시였다. 『문우』가 발행되자 『신청년』에서 활동하던 나도향, 박영희 등이 박종화를 찾는데, 조우는 이후 『백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조』 1호가 발행된 시기는 조선에 뿌려진 문학의 씨가 발아할 공간을 찾지 못할 때였다. 고급 종이와 첨단의 장정에서 『백조』에 대한 동인들의 자부를 느낄 수 있다. 이 글은 식민지시대 경성 지도를 통해 '문화사'의 위치 역시 정확히 하려 했다. 『백조』는 모두 외국인의 명의로 발행

* 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되었다. 조선에서 시행된 「출판법」의 경우 발행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었고, 『백조』가 '신고'만으로 발행된 것도 아니었다. 『백조』 3호는 1년 반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나왔다.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경영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백조』 2호와 3호의 사이에 문학 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동아일보』, 『개벽』, 『동명』 등은 '문예특집'을 마련하는 한편 원고료를 지불했는데, 이는 이후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다. 동인지 문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부정하는 가운데 상징적 특권을 획득해 문학 장에 편입하게 된다. 문학 장의 변화가 『백조』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백조』였다.

주제어: 『백조』, 동인지, 문학 장, 『문우』, 장정, 발행인, 출판법, 원고료.

1. 문제의 소재

문학사적 서술에서 『백조』의 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되고 있다. 먼저는 『창조』, 『폐허』에 이어 1920년대 전반기 동인지 문학을 이루었던 동인지의 하나라는 규정이다. 이 경우 『백조』의 문학적 성격은 자연주의에 이어진 낭만주의로 파악되며, 낭만주의 앞에 병적, 퇴폐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기도 한다.[1] 다른 하나는 3호를 계기로 『백조』가 '프로문학'으로 나아가는 문학적 경향의 온상 역할을 했다는 규정이다. '신경향파문학'을 『백조』적 혼돈이 낳은 가장 영맹하고 준예한 문학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2]

1) 백철과 조연현은 『백조』를 『창조』, 『폐허』에 이어진 동인지로 보고 그 성격은 낭만주의로 규정했다. 김윤식・김현은 『백조』를 따로 다루지는 않고 이상화, 박영희, 현진건 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 조동일은 『폐허』와 함께 『백조』를 같은 절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백철, 『朝鮮新文學思潮史(近代編)』, 수선사, 1948, 275-382면;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현대문학사, 1957, 209-213・393-414・457-459면;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45-158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159-166면 참조.

2) 임화는 「朝鮮新文學史論序說」, 「小說文學의二十年」 등에서 『백조』의 성격을 현실의 부정이 폭로의 정열로 표출된 것으로 파악한다. 나아가 박영희, 이상화 등을 중심으로 『백조』적 혼돈이 낳은 가장 영맹하고 준예한 문학을 신경향파문학이라고 했다. 김재용・하정일 역시 『백조』는 현실에 대한 환멸과 도피를 주된 성격으로 하지만 그것에 기반을 두고 프로문학으로 나아간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임화, 「朝鮮新文學史論序說」, 『조선중앙일보』, 1935.10.25.-29.; 「小說文學의二十年」, 『동아일보』, 1940.4.16.-17.; 김재용・하정일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440-443면 참조.

이들 접근은 거칠게나마 『백조』를 문학사적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둘 모두 미진한 부분 역시 지닌다. 특히 『백조』가 발행되었던 시기가 당시 문학 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때와 겹쳐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다.

먼저 『백조』를 『창조』, 『폐허』와 더불어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하나로 규정하는 논의부터 살펴보겠다. 『백조』가 창간된 것은 1922년 1월 9일인데, 발행 시기가 지니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상론하겠지만 동인지 문학의 출발을 알렸던 『창조』가 폐간된 것은 1921년 5월이었다. 『창조』에 이어 창간되었던 『폐허』는 1921년 1월 발행된 2호를 종간호로 짧은 수명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백조』는 『창조』가 폐간된 지 9개월, 『폐허』가 막을 내린 지 1년 만에 발행된 것이었다.

당시는 『창조』, 『폐허』를 통해 뿌려진 문학의 씨가 제대로 발아될 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때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이 문학에 할애된 지면은 '연재소설란', '독자문단', '기서란' 정도였는데, 그곳을 앞선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잡지 가운데 드물게 안정적인 발행을 이어갔던 『개벽』 역시 1922년 중반까지는 현철, 방정환, 김석송 등 '개벽사'와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문예면이 메워졌다. 이는 창간 당시 『백조』가 문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3호부터 김기진이 참여하면서 『백조』 동인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백조』가 프로문학으로 나아가는 온상 역할을 했다는 평가 역시 사실에 가깝다. 『백조』를 "데카다니슴의 최고봉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자기반성과 아울러 다음 계단에서 자기세계를 발견하"[3]였다는 박영희의 언급 역시 그것을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글은 『백조』 2호와 3호의 시간적 간극에 '새로운 경향의 문학'으로 나아가는 흐름보다 더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려 한다.

『백조』 2호와 3호의 시간적 간극에는 『동아일보』, 『개벽』에서 처음으로 문인들의 회합을 마련하고 '문예특집'을 기획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인들에게는

3) 박영희, 「現代韓國文學史」(4), 『사상계』 63, 1958.10., 244면.

원고료를 지급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문학 장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문단이라는 경계가 만들어지고, 또 작품을 싣는 대가로 원고료를 받는 일이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백조』가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러한 문학 장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백조』 자신이 변화를 추동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백조』를 기반으로 해 '프로문학'으로 나아가는 흐름은 당시 일어났던 변화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백조』를 『창조』, 『폐허』에 이어지는 동인지나 프로문학이 발아했던 토양으로 한정하는 문학사적 논의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근래의 논의 역시 『백조』의 온전한 모습을 구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는 『백조』에서 활동했던 작가를 다루면서 발표 지면의 하나로 『백조』에 주목하는 데 머물고 있다. 오히려 『백조』가 탄생하는 계기였던 『문우』와 『신청년』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이루어진 바 있다.[4] 또 『문우』와 『신청년』의 결합을 통해 『백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과 함께 문학과 사상의 분화로서 홍사용과 정백의 관계를 해명한 논의 역시 개진되었다.[5] 이를 고려하면 미디어로서 『백조』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드물며, 그 출발이 되어야 할 서지사항이나 동인들의 면면에 관한 실증적인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하게 느껴진다.[6]

의아함은 『백조』의 발행인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백조』는 1호에서 3호까지 모두 외국인 명의로 발행했다. 2호는 그것 때문에 발행이 2달이나 늦어졌고, 3호는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0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발행인을 외국인으로 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한다.[7] 4장에서 상론하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백조』의 발행에 적용되었던 「출판법」의 경우 외국인 발행인에 관한

4) 이경돈, 「동인지 『문우』와 다점적 혼종의 문학」,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2010, 184-186면; 한기형, 「잡지 『新青年』과 경성청년구락부」, 『서지학보』 26, 서지학회, 2002, 165-206면 참조.
5) 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35-65면 참조.
6) 최원식, 「백조의 양면성」, 『백조』 겨울호, 노작홍사용문학관, 2020.12.21., 189면.
7) 박영희, 「草創期의 文壇側面史」, 『현대문학』 57. 여기에서는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 Ⅱ, 영남대 출판부, 1997, 316-317면 참조.

조항 자체가 없었으며 인쇄 후 검열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한 것도 아니었다.

『백조』의 구성원, 곧 동인에 관한 논의에서도 미진함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백조』 동인은 홍사용, 박종화, 나도향, 박영희, 현진건, 이상화, 노자영, 오천석, 안석주, 원우전, 이광수 등으로 서술된다. 이들은 모두는 『백조』에 글이나 그림을 발표해, 동인으로 파악해도 무리는 없다. 하지만 이들을 일괄적으로 동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백조』라는 미디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인들 가운데 『백조』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은 홍사용, 박종화, 나도향, 현진건, 박영희 등이었다. 그리고 6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들 가운데도 홍사용, 박종화, 박영희와 나도향, 현진건의 사이에는 다시 경계가 존재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 글은 『백조』의 미디어적 성격과 위상을 해명하려 한다. 그것을 위해 먼저 『서광』, 『문우』, 『신청년』 등에서 『백조』에 이르는 도정을 검토하려 한다. 이어 『백조』 1호에서 3호까지를 논의할 것인데, 먼저 『백조』의 서지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히 외국인의 명의로 발행했던 온전한 이유를 해명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 영인된 3호의 '판권간기' 역시 바로 잡게 될 것이다.[8] 이어 1호에서 3호에 이르기까지 『백조』의 필진과 작품의 성격을 다루면서 『백조』 동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역시 분명히 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로서 『백조』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을 통해 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장의 변화와 성격을 해명하고자 한다.

2. 『백조』에 이르는 도정

박종화는 『백조』 1호의 「六號雜記」에서 『백조』의 창간 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 우리의 藝術 동산에 한낫 밝음의 빗을 볼까하야 다른 날 꼿다운 花園에 경성된 園丁이 될가 하야 뜻한 지 임의 四年 쇠한 지 二年 쎠 남어지에 비로소 멧낫

8) 근래 발표된 『백조』에 관한 논의 역시 『백조』 3호의 판권간기가 없어 다른 서적을 참고로 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최원식, 「백조의 양면성」, 앞의 책, 노작홍사용문학관, 2020.12.21., 198면.

뜻이 가흔 글동무와 두낫 뜻깁흔 後援者 金德基, 洪思中 兩氏를 엇어 이에 우리의 뜻하든 文化社가 出現케 되니 그써 經營하는 바는 (…) 9)

인용은 동인들이 문학에 뜻을 둔 지 4년 만에, 또 잡지 발행을 꾀한 지 2년 만에『백조』가 탄생했음을 말하고 있다. '문학에 뜻을 둔 지 4년 되었다'는 언급은 1918년 〈휘문고등보통학교; 이하 '휘문고보'라고 칭함.〉를 다닐 때를 가리킨다. 박종화는 〈휘문고보〉를 다니다가 우연히 정백과 홍사용이 쓴 원고를 보고 두 사람과 문학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10) 이후 그는 정백과 인사를 나눈 후 정백을 통해 홍사용, 안석주 등과도 교류하게 된다. 이들은 함께 학예부에서 활동하면서 '휘문문우회'를 조직하고 등사판을 빌려『피는꼿』이라는 회람지도 만들었다.11)



『문우』 1호의 표지와 목차
(이미지 출처: 〈현담문고〉)

인용에서 '잡지 발간을 꾀한 지 2년 되었다'는 박종화의 언급은 1920년 5월 발행된『문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박종화, 정백, 홍사용 등이 글을 발표한 지면은『문우』보다『서광』이 먼저였다.『서광』은 1919년 11월 '문흥사'에서 발행한 잡지였다.12) 박종화는『서광』 1호에「平壤行」,「努力과懶散」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스스로 처음으로 활자화된 글이라고 밝힌 바 있다.13) 또 그는 1920년 2월에 발행된『서광』 3호에도「아침해」,「쌀가버슨나무그늘에」 등의 시를 발표했다.14) 홍사용은『서광』 창간호에 '笑啞生'라는 필명으로「어둔밤」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9)「六號雜記」,『백조』 1, 1922.1., 141면. 이하의 인용문은 원문의 표기법을 따른다. 띄어쓰기는 현대식으로 바꾸겠다. 단 작품명의 경우 원문의 표기법과 띄어쓰기를 따르겠다.
10) 윤병로,『박종화의 삶과 문학—미공개월탄일기평설』, 성균관대 출판부, 1992, 215-217면 참조.
11) 윤병로, 같은 책, 181-183면 참조.
12) 판권간기,『서광』 1, 1919.11, 169면 참조.
13) 윤병로, 같은 책, 1992, 186-187면 참조.
14) 박종화,「아침해」,「쌀가버슨나무그늘에」,『서광』 3, 1920.2., 104-105면 참조.

『서광』 4호가 발행된 후 이병조는 박종화와 홍사용에게 문예잡지『문우』도 발행하자는 제의를 한다.『문우』 창간호는 1920년 5월 15일 발행되었는데, 당시는『서광』 4호가 발행되고 5호가 발행될 무렵이었다. 박종화, 홍사용은 이서구 등과 함께『문우』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했다.[15] '판권간기'를 보면 편집 겸 발행인은 이병조였고, 인쇄소는 대동인쇄주식회사였으며, 가격은 30전이었다.[16]

『문우』의 필진은 박종화, 홍사용, 이서구를 비롯해 정백, 박헌영, 최정묵, 차동균 등이었다. 박종화는『문우』 1호에 논문「샘볼리슴(象徵主義)」, 소설「白熱」, 시「왜이리 슳허」,「除夜에」,「미친구름」 등을 발표했다. 정백은 소설「卄一日」을 실었다. 정백과 함께 이후 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이게 되는 박헌영이『문우』에 글을 실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홍사용은『문우』 창간호에 '새별'이라는 필명으로 권두시「새해」를,[17] 또 '露雀'으로「크다란집의찬밥」,「철모르는아히가」,「벗에게」 등 세 편의 시를 발표했다.[18] 박종화에 의해 홍사용의 유고시로 발굴된「푸른언덕가으로」는 실제 홍사용이 다듬어『문우』에「크다란집의찬밥」으로 발표한 시였다.『문우』는 1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못했다.

『문우』가 창간되었다는 소식이 1920년 5월 23일자『동아일보』의「新刊紹介」에 실렸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도향, 박영희 등이 박종화를 찾는다.[19] 나도향과 박영희는 〈배재고등보통학교; 이하 '배재고보'라고 칭함.〉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20] '山縣'이라는 이름을 지닌 일본인 교사에 의해 문학에 눈을 뜬 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校庭 老松 밑에 모여서 제각기 한 마디씩 批評을 하"[21]는 등 문학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갔다. 이 조우는 뒷날『백조』가

15) 박종화,「白潮時代의 그들」; 여기서는『청태집』, 영창서관, 1942, 160-162면 참조
16)『문우』의 서지사항 및 성격과『백조』와의 연계는 정우택, 앞의 글, 2009, 47-53면 참조.
17) 새별,「새해」,『문우』 1, 1920.5., 1면. '새별'이 홍사용의 필명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경돈, 앞의 글, 2010, 184-186면 참조.
18) 露雀,「크다란집의찬밥」,「철모르는아히가」,「벗에게」,『문우』 1, 1920.5., 2-5면.
19) 윤병로, 앞의 책, 1992, 190면.
20) 박영희는 비슷한 시기 김기진, 나도향과 친했으며 "「詩의 俱樂部」라는 複寫式印刷의「팜푸레트」를 시작하여서 이 機關에서 詩를 發表"했다고 했다. 박영희,「나의文學青年時代(2)」,『신동아』 35, 1934.9., 133면 참조.
21) 박영희,「草創期의 文壇側面史」,『현대문학』 57. 여기에서는 이동희・노상래 편, 앞의 책, 280면 재인용.

탄생하는 계기였다는 데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영희, 나도향과 〈배재고보〉 1년 후배인 최승일은 『신청년』에서 활동을 했다. 『신청년』은 1918년 7월 결성된 '경성청년구락부'의 기관지적 성격을 지닌 잡지였다. 1919년 1월 20일부터 1921년 7월 15일까지 모두 6호가 간행되는데, 주도층의 성격이나 잡지의 내용에 있어 전기와 후기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22] 박영희, 나도향, 최승일 등은 후기 『신청년』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신청년』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동인을 영입하기 위해 박종화, 현진건 등과 회합을 가진다.

> 崔承一 君이 雜誌 新青年을 規模를 좀 더 크게 하고 質을 높이게 하려는 意圖로 나와 및 憑虛(그때 開闢에 『犧牲花』를 發表하였다)를 淸凉寺로 招待하고 懇談會를 열은 일이 있었다. 勿論 이때에 稻香과 懷月은 新青年의 舊同人側으로 왔었다. 새로이 할 雜誌를 『白虹』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었으나 合意치 못하여 그대로 流産되어버리고 말었다.[23]

박영희, 나도향, 최승일 등 『신청년』 동인이 잡지를 혁신하려는 의도로 박종화, 현진건 등을 초청해 새로운 동인지 제호를 '白虹'이라고 짓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신청년』 4, 5호에 박종화의 시 「눈물의 씀결」, 「運命의 輓歌」와 현진건의 번역 「乞人」이 실렸음을 고려하면, 위의 회합은 적어도 『신청년』 4호가 발행된 1921년 1월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 모임에 홍사용이 빠져 있고 『백흥』이라는 잡지 역시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회합이 이후 『백조』로 이어진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박영희연구』에서 『백조』를 『문우』 계열의 작가와 『장미촌』에서 활동한 시인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24] 박종화, 박영희, 노자영 등이 『장미촌』에 글을 발표했다는 점, 특히 박영희가 『장미촌』의 편집과 발행에 주된 역할을 했으며, 발행소의 주소 역시 박영희 집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22) 한기형, 앞의 글, 2002, 165-206면 참조.
23) 박종화, 「羅稻香十年忌追憶片片」; 여기서는 『靑苔集』, 영창서관, 1942, 180면 참조.
24) 김윤식, 『박영희연구』, 열음사, 1989, 21-23면 참조.

고려되었던 것 같다.[25] 하지만 앞선 사실들을 고려하면 『백조』는 '〈휘문고보〉-『문우』 계열'과 '〈배재고보〉-『신청년』 계열'이 통합해 탄생한 것으로 보는 편이 정당할 것이다.[26]

『백조』의 창간과 관련된 한 가지 의문은 왜 정백은 『백조』 동인으로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문예 잡지 백조와 사상 잡지 흑조를 간행하는 동시에 문예와 사상 두 방면을 목표로"[27] 했다는 점, 그리고 정백에게 『흑조』의 편집과 발행을 맡기려 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28] 하지만 박종화, 정백, 홍사용이 이전 『서광』과 『문우』 두 잡지 모두에서 활동했듯이 사상 잡지를 계획했다고 해서 『백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오히려 정백이 『백조』 동인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은 홍사용과의 갈등 때문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 홍사용과 정백의 갈등은 막역했던 그들의 관계만큼 주목을 받았다. 그 시기는 1922년 1월 6일 박종화의 일기를 근거로 1922년 이후라고 파악되었다.[29] 그런데 근래 발굴된 『조선일보』 '문예란'에 대한 논의는 박종화의 시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그보다 일찍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박종화는 1921년 7월 14일 『조선일보』의 '문예란'에 시 「廢園에누어셔」를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黑房祕曲』에 수록된 「廢園에누어셔」에 없는 3장이 덧붙여져 있다.

> 타오르든 불길이 모다 써져셔 / 그것이 직와 슷쌘일 적에 / 破滅의 그것을 닉가 볼 적에 / 苦로운 압흠도 이져버리고 / 눈물이 두 쌈에 흘너나렷다 / 으々 사랑이란 이러한 거뇨? / 나의 사모ᄒᆞᄂᆞᆫ 그ᄃᆡ들이여— [30]

인용은 3장의 일부로 시적 화자는 '타오르든 불길'에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인용의 뒤에는 "默笑 笑啞 두 兄씌"라고 부기되어 있다. 당시 '默笑'는

25) 『장미촌』의 구성원과 활동에 관해서는 「同人의말」, 『장미촌』, 1921.5., 22면.
26) 정우택, 앞의 글, 2009, 47-53면 참조.
27) 「六號雜記」, 『백조』 1, 1922.1., 141면.
28) 박종화, 『歷史는 흐르는데 靑山은 말이 없네』, 삼경출판사, 1979, 430면 참조.
29) 윤병로, 앞의 책, 1992, 25면.
30) 박종화, 「廢園에누어셔」, 『조선일보』, 1921.7.14., 1면.

정백의 필명이며 '笑啞'는 홍사용의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廢園에누어셔」의 중심에 위치한 비애와 그것을 야기한 파멸은 '사모ᄒᆞᄂᆞᆫ 그ᄃᆡ들', 곧 정백과 홍사용의 갈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의 말미에 부기된 집필 날짜는 홍사용과 정백의 갈등이 싹텄던 것이 1920년 8월 즈음임을 말해준다.[31]

정백은 『서광』이 8호로 종간되자 북간도, 노령 등을 방문했다가 1921년 겨울 귀국한다. 이후 사회주의 청년단체인 〈서울청년회〉에 가입하는 한편 잡지 『신생활』의 기자로 활동한다. 『신생활』 창간호가 발행된 것은 1922년 3월 15일이었지만, 이미 같은 해 1월 15일, 2월 21일 등에 창립총회, 이사회 등이 열렸다.[32] 이후 정백은 『신생활』 기자로 일하면서 〈서울청년회〉가 중심이 된 〈고려공산동맹〉에 참여하는 한편 여러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에 반해 홍사용은 낙원동의 사무실을 얻는 비용을 담당했으며 이광수, 노자영, 오천석과 같은 새로운 동인들을 끌어들이는 등, 『백조』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백조』 1호가 발행된 것은 1922년 1월 9일이었지만 『백조』 동인들이 낙원동에 뒤에 전셋집을 사무실로 꾸미고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21년 봄부터였다.[33] 근래 개진된 논의에서 적절하게 평가했듯이, 이러한 진로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미분화된 열망과 욕망 가운데서 문학성과 정치성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자 문예와 사상이 분화되는 단초였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34]

3. 흑방에서 나온 첨단의 장정; 『백조』 1호

『백조』 1호가 발행된 것은 1922년 1월 9일이었다. 1920년대 동인지문학 시대의 출발을 알린 것은 1919년 2월 1일 창간된 『창조』였다.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최승만, 김환 등 중심으로 창간된 『창조』는 이후 김억, 김찬영,

31) 박현수・홍현영,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문예란」 연구—발굴과 위상의 구명」,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175-179면 참조.
32)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300-301・343-344・431-432면 참조.
33) 윤병로, 앞의 책, 1992, 192-194면 참조.
34) 정우택, 앞의 글, 2009, 58-69면 참조.

오천석, 김명순 등 동인들의 부침이 있었지만 9호까지 발행을 이어갔다. 『폐허』는 염상섭, 남궁벽, 오상순, 황석우, 민태원, 나혜석, 김원주 등을 동인으로 1920년 7월 25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조』가 나온 지 1년 반 정도 뒤였는데, 1921년 1월 20일에 발행된 2호를 끝으로 반 년 남짓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창조』의 종간호인 9호가 발행된 것은 1921년 5월 30일이었다. 『창조』, 『폐허』를 통해 문학 활동을 시작해 조선에 문학의 씨를 발아시키려 했던 작가들은 제대로 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백조』 1호의 표지 이미지
(이미지 출처: 〈현담문고〉)

당시 창간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미디어 역시 그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창간 초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문학에 할애된 지면은 4면의 '연재소설란'이었다.[35] 신문에 연재된 소설은 원작자나 원작소설 등은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연재소설을 창작도, 번역도 아닌 '이상야릇한 무엇'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36] 연재소설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신문사의 기자였던 것 역시 앞선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다. '연재소설란' 외에 투고란인 '독자문단'(『동아일보』)과 '기서란', '기고란'(『조선일보』) 등이 개설되었지만, 이들 모두 앞선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37] 잡지 미디어 가운데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발행되었던 『개벽』 역시 1922년 후반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문예면을 담당한 것은 현철, 방정환, 김석송 등 '개벽사'에 소속된 기자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5) 『浮萍草』는 1920년 4월 1일 창간과 함께 『동아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해 같은 해 9월 4일 연재를 마쳤고, 『엘렌의功』은 1921년 2월 21일에서 7월 2일까지 연재를 이어갔다.
36) 『조선일보』에 연재된 『白髮』, 『發展』, 『處女의 자랑』 등은 신문에 연재를 시작하기 전 연재될 소설의 성격을 소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靑黃生, 『白髮』, 『조선일보』, 1921.5.14.; 擊空生, 『發展』, 『조선일보』, 1920.12.2.; 泡影生, 『處女의 자랑』, 『조선일보』, 1921.12.6. 참조.
37) '기서란'에서 '기고란'으로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선일보』, 1921.2.21., 4면 참조.

『백조』 1호가 발행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백조』는 150×210㎜인 국판으로 발행되었는데, 지금의 A5 크기와 비슷한 정도였다.[38] 이전에 나온 『창조』와 『폐허』 역시 국판이었는데, 『백조』만의 독특함은 용지와 장정에 있었다. 『백조』는 "당시에 흔치 아니했던 외국산 누른색이 도는 고급지를 사용했"으며, 장정은 첨단 유행을 따라 "책의 모서리도 반듯하게 다듬어 놓지 않"[39]았고 "프랑스 시집 식을 취해서 도련을 하지 아니하고 독자가 칼로 끊어서 읽도록 했다"고 되어 있다.[40]

『백조』 1호의 분량은 144면이었고, 가격은 60전이었다. 『창조』 1호는 84면에 30전이었고, 『폐허』는 130면에 45전이었다. 『폐허』와 비교하면 비슷한 분량이었음에도 가격은 15전이나 차이가 났다. 이후 2호가 70전, 3호가 90전으로 『백조』의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다. 분량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데도 『백조』의 가격이 비쌌던 것은 앞서 확인한 용지나 장정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조』 3호의 「六號雜記」에서는 비싼 용지가 가격 인상의 계기가 되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인쇄는 '대동인쇄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창간호는 1,000부를 인쇄해 발행했다고 한다.

『백조』 1호의 '판권간기'를 보면 편집인은 홍사용이고, 발행인은 '美國人 亞扁薛羅'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亞扁薛羅'는 헨리 아펜젤러 2세(Henry Dodge Appenzeller)를 가리킨다.[41] 그의 아버지는 북감리교회에서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로,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 왔다. 그는 조선에 감리교회를 창설하고 배재학당을 설립했지만, 1902년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아버지에 이어 헨리 아펜젤러 2세가 〈배재학당〉의 교장과 이사장을 맡게 되는데, "첫 호는 배재고보 교장이었던 미인 안펜셀라 씨의 호의로서 발행하였"[42]다는 언급처럼 『백조』 1호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인물은 그였다.

38)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4, 541면 참조.
39) 조용만, 『京城野話』, 도서출판 창, 1992, 105면.
40) 박종화, 「도향과 『백조』 시절」, 앞의 책, 1979, 431-432면 참조.
41) 최원식, 앞의 글, 노작홍사용문학관, 2020.12.21., 194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백조』의 동인 가운데는 박영희, 나도향 등 〈배재고보〉 출신들이 많았는데, '亞扁薛羅'를 발행인으로 했던 것은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조'라는 동인지의 제명은 박종화가 지었다고 한다. 당시 박종화는 일본의 문예잡지『白樺』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동인지의 이름을『백조』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백화파'는 일본에서 1910년 4월 창간된 잡지『白樺』를 중심으로 활동한 문학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의 문학은 당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움직임에 근간을 두고 이상적인 인도주의나 인격주의를 주장했다.[43] 염상섭을 비롯한『폐허』의 동인들 역시 '백화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음을 고려하면,『白樺』는 박종화뿐만 아니라 여러 문인들에게 문학적 모티프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적 접근에서『백조』 동인은 일반적으로 홍사용을 비롯해 박종화, 나도향, 박영희, 현진건, 이상화, 노자영, 오천석, 안석주, 원우전, 이광수 등으로 서술된다.[44] 이들 가운데 〈휘문고보〉에서『문우』로 이어지는 계열과 〈배재고보〉를 거쳐『신청년』으로 나아갔던 동인들에 대해서는 2장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들 외에 노자영과 오천석을『백조』 동인으로 추천한 사람은 홍사용이었는데,[45] 당시 오천석과 노자영은『학생계』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상화를『백조』의 동인으로 추천한 인물은 동향이었던 현진건이었는데, 이상화는 1호부터 글을 발표했지만 다른 동인들과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은 2호가 발행된 후인 1922년 6월이었다.[46]

『백조』 동인의 면면을 살펴볼 때 가장 의외의 인물은 이광수다. 명목상 이광수를『백조』의 동인으로 추천한 인물은 홍사용이었다. 그런데 홍사용과 박종화는 〈휘문고보〉를 다니면서『붉은저고리』,『새별』과 힘께『청춘』을

42) 박영희, 앞의 책, 1997, 318면.
43) 中村光夫, 유은경 역,『일본의 근대소설』, 동인, 1995, 206-211면; 伊藤整, 고재석 역,「근대 일본인의 발상의 여러 형식」,『근대 일본인의 발상형식』, 소화, 1996, 7-65면 참조.
44) 박종화, 앞의 책, 1979, 430-433면 참조.
45) 윤병로, 앞의 책, 1992, 193면 참조.
46) 윤병로, 같은 책, 37면 참조.

읽으며 거기에 실린 이광수의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47] 또 박영희와 나도향도 〈배재고보〉를 다닐 때 『청춘』에 실린 소설을 읽고 토론을 하는 등 이광수를 동경했음을 밝힌 바 있다.[48] 박종화의 일기를 보면 1922년 1월 6일에는 홍사용과 박종화가 이광수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한다.[49] 이광수를 『백조』 동인으로 끌어들였던 이유는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진건의 형인 현정건은 이광수가 『백조』 동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단호히 반대를 했다. 이광수는 1921년 3월 상해에서 귀국하던 도중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어 조선총독부와의 밀약을 의심받은 데 이어 1922년 5월 『개벽』 23호에 「民族改造論」을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50] 현정건은 '상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1920년 중반 이동휘, 김립, 이한영 등과 함께 〈고려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22년 10월 열린 〈고려공산당〉 합동대회에는 〈상해 공산단체〉 대표로 참가했다.[51] 현정건의 반대를 계기로 해 이광수는 『백조』 2호까지 글을 발표하고 동인에서 제명되었다.

실제 원우전을 제외하고 동인들 모두 『백조』 1호에 글과 그림을 발표했다. 글은 실제 『백조』 1호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목차와 「六號雜記」에 실린 "裝幀 安碩柱", "表紙는 젊은 畫家로 造詣가 깊은 安碩柱 君의 그림이다"[52]는 언급을 보면 안석주 역시 표지를 그리고 장정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원우전 역시 『백조』 2호부터 표지화를 그리고 장정에 참여하는 등 동인으로서의 활동을 해 나갔다. 따라서 이들을 『백조』 동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동인으로 되어 있지만 활동에 있어서 각각이

47) 윤병로, 앞의 책, 1992, 35면 참조.
48) 박영희, 「草創期의 文壇側面史」, 『현대문학』 56; 여기서는 앞의 책, 1997, 280-284면 참조.
49) 윤병로, 앞의 책, 1992, 35면 참조.
50)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현정건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은 1928년 3월이었다. 같은 해 11월 9일, 12월 7일 등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으며, 12월 21일 선고공판에서 현정건은 삼년 징역 구형을 받아 1932년 6월 10일 출옥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上海事件判決」, 『동아일보』, 1928.12.23., 2면; 「出獄한玄, 邊兩氏」, 『동아일보』, 1932.6.12., 2면 참조.
51)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현정건의 활동과 현진건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박현수, 「문인—기자로서의 현진건」,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2016, 284-291면 참조.
52) 「六號雜記」, 『백조』 1, 1922.1., 141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조』 동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는 1922년 2월 10일『백조』 1호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모임이 있다. 모임에는 동인 측으로는 홍사용, 박종화, 나도향, 현진건, 노자영, 안석주가, 또 주최 측으로는 홍사중이 참여했다.[53]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홍사중은『백조』 1, 2호의 발행 경비를 담당한 홍사용의 재종형이었다. 한편 같은 해 3월 5일『백조』 2호 편집회의를 갖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물들은 홍사용, 박종화, 나도향, 현진건, 박영희였다.[54] 이후의 여러 차례 계속된 편집회의에 참석해『백조』 편집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인물들 역시 이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박영희가 앞선『백조』 1호 발행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동경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인들 가운데『백조』를 발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홍사용을 비롯해 박종화, 나도향, 현진건, 박영희라고 할 수 있다.『백조』 2호가 발행된 후 동인들과 인사를 나눈 이상화는『백조』에 시를 발표하는 데 주력했다. 노자영 역시 작품을 싣는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천석은『백조』 1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박영희가 동인에 관해 언급하면서 노자영과 이광수를 '기고가'로 표현했으며, 오천석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55] 동인들 가운데 안석주와 원우전은 그림과 장정을 담당했던 화가라는 점에서 활동을 가늠하는 데 예외적인 면이 있다.

『백조』 1호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검열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진건은『백조』 1호에 '치리코프 작'인「迎春柳」라는 번역을 게재했다. 그런데 실제 현진건은「迎春柳」 외에 창작「纏綿」도 썼던 것으로 보인다.「六號雜記」를 보면 박종화는『백조』 1호에 소설에 세 편 실렸다며, 나도향의「젊은이의시절」, 노자영의「漂泊」과 함께 현진건의 소설「纏綿」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53) 윤병로, 앞의 책, 1992, 36면 참조.
54) 윤병로, 위의 책, 42면 참조.
55) 박영희,「文壇의 그時節을회상한다」,『조선일보』, 1933.9.14., 2면.

같은 글에서 홍사용은 현진건의 「纏綿」이 "그의 그 뜻을 알어쥬는 이 업서 驅迫에 쏫기어 가는 이 되엿슬 쓸"[56]이라고 해, 검열에 저촉되어 싣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검열 때문에 현진건의 「纏綿」이 못 실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백조』의 발행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론을 하겠다. 『백조』 1호에 발표된 글을 필명과 발표 당시의 제목대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백조』 1호 수록 작품 목록

필명(이름)	제목	장르	비고
洪思容	白潮는흐르는데별하나나하나	권두시	
露雀(홍사용)	쑴이면은?, 통발, 漁父의跡, 풀은江물에물노리치는것은	시	
盧子泳	漂泊	소설	
月灘(박종화)	密室로도라가다, 永遠의僧房夢	시	
稻香(나도향)	젊은이의시절	소설	
懷月(박영희)	微笑의虛華市, 幻影의黃金塔, 어린이의航路	시	
春園(이광수)	樂府	시가	
李相和	來世의唏嘆	시	
吳天園(오천석)	무지개나라로	동화	
羅彬(나도향)	투게네의散文詩	평론	
春城(노자영)	鐵盆城에서	수필	
懷月(박영희)	客	산문시	
憑虛(현진건)	迎春柳	번역	치리코프 작
春城(노자영)	웃피려는處女	시	
朴英熙	사로메	번역	오스카 와일드 작
月灘(박종화)	여시아의民謠	평론	
同人	六號雜記	편집후기	

56) 「六號雜記」, 『백조』 1, 1922.1., 142면.

4. 발행인 명의와 검열의 문제;『백조』2호

『백조』2호는 1922년 5월 25일 발행되었다.『백조』2호의 분량은 158면으로 1호에 비해 10면 정도 늘었고 가격 역시 70전으로 10전이 올랐다. 판권간기를 보면 발행소는 여전히 '문화사'였고, 인쇄소는 '대동인쇄주식회사'에서 '신문관'으로 바뀌었다. 인쇄소가 바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편집인은 1호와 같이 홍사용이었는데, 이 글이 관심은 발행인은 '亞扁薛羅'에서 '샢이스婦人'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1922년 5월 30일『동아일보』에 실린『백조』2호의 광고이다.『백조』2호 광고는 1922년 6월 12일에도 같은 신문에 실렸다.

『백조』1호가 나온 것이 1월 19일이니,『백조』2호는 5개월 정도가 지나서 발행된 것이었다.『백조』1호의 판권간기나 광고를 보면 '文藝雜誌 隔月刊行'이라고 되어, 잡지를 두 달 간격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백조』2호는 1922년 3월 발행을 할 계획으로 편집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1호에 이어 2호의 발행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亞扁薛羅'가 갑자기 발행인을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백조』동인들은 급히 '샢이스夫人'를 섭외해 발행인으로 내세우게 된다. '샢이스夫人'은 미국인으로 당시 조선에서 교육 시찰에 관한 연수를 받던 인물이었다. 1922년 5월에 발행되었음에도『백조』2호에 게재된 글 대부분이 3월 이전에 쓴 글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57]

여기서 발행을 2개월이나 미루면서까지 발행인의 명의를 외국인으로 하려던 이유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백조』3호는 심지어 돈이 궁했던 망명 러시아인 '훼루훼로—'에게 30원을 주고 발행인 명의를 빌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백조』동인의 언급에 기대 외국인에게는 출판권이 있어서 발행인을 외국인으로 할 경우 책을 출판한 후 검열계에 제출만 하면 되었기 때문으로

57)「六號雜記」,『백조』2, 1922.5., 157면 참조.

파악되어 왔다.[58]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실제 『백조』의 발행에 작용되었던 '출판법'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다.

第三條 文書・圖畫ヲ出版スルトキハ, 發行ノ日ョリ到達シ得ベキ日數ヲ除キ十日前, 製本三部ヲ添附ヘ內務省ヘ**'屆出'ベシ**.

第二條 文書・圖畫를 出版코져 ᄒᆞᄂᆞᆫ 時ᄂᆞᆫ 著作者ᄂᆞᆫ 其 相續者와 及 發行者가 連印ᄒᆞ야 地方長官(漢城府)에셔ᄂᆞᆫ 警視總監으로 ᄒᆞᆷ)을 經由ᄒᆞ야 內部大臣에게 **'許可'를 申請**ᄒᆞᆷ이 可ᄒᆞᆷ. (강조는 인용자)[59]

위쪽에 있는 인용은 일본에서 1893년 제정, 시행된 「出版法」의 3조이다. 1893년의 「出版法」은 1887년에 나온 「出版條例」를 수정, 보완한 것이었다. 인용을 번역하면 '제3조 문서・도화를 출판할 때는 발행일부터 우송 기일을 제외하고 10일 전에 제본 3부를 첨부해 내무성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아래쪽의 인용은 1909년 2월 23일 조선에서 제정되어 시행된 「出版法」이다. 문서・도화를 출판할 때는 지방장관을 거쳐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10년 5월 28일에는 통감부는 조선에서 시행되던 「出版法」을 보완하는 「出版規則」을 제정했다.[60] 주목해야 할 부분은 「出版規則」의 제정에 따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해 출판을 할 수 있었"[61]다는 점이다. 그런데 「出版法」에는 이 글의 관심이 놓이는 발행인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따지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조항은 조선에서 1907년 7월 24일에 제정, 시행된 「新聞紙法」에 있다.[62] 1897년에 제정된 「新聞紙條例」까지 발행인은 내국인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新聞紙法」에서는

58) 박영희, 앞의 책, 316-318면 참조.
59) 松本三之介・山室信一, 『言論とメディア』(日本近代思想大系11), 岩波書店, 1990, 435面; 『官報』 제4311호, 1909.2.26.
60) 統監府, 『公報』 제154호, 1910.5.28.
61) 김창록,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303면.
62) 1907년 7월 24일에 제정, 시행된 「新聞紙法」에는 신문의 인쇄, 출판 역시 허가제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08년 4월 30일 수정된 「新聞紙規則」부터는 신문의 발행은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統監府, 『公報』 제52호, 1908.5.2. 참조.

"第三條 發行人 編輯人 及 印刷人은 年齡 二十歲 以上의 男子로 國內에 居住ᄒᆞᄂᆞᆫ 者에 限ᄒᆞᆷ"[63]이라고 해 외국인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出版法」의 경우, 발행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별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조항들을 유추해서 적용했다. 그렇다고『백조』가 일본인을 발행인으로 한 경우처럼 신고를 통해 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앞서 검토한 현진건의 소설「纏綿」을 통해 알 수 있다.『백조』1호의「六號雜記」에서 박종화는 나도향, 노자영 소설과 함께 현진건의「纏綿」도 게재되었다고 했는데, 홍사용은「纏綿」가 검열에 의해 실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백조』1호를 편집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纏綿」이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고를 거쳐『백조』를 발행했다면, 발행된 후 발매금지나 압수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1922년 후반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된『신천지』11월호,『신생활』11호, 12호가 연이어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은 그런 예이다.[64] 1924년 1월 발행된『폐허이후』역시 '압수' 처분을 받아 2월이 되어서야 임시호를 발행했다.『폐허이후』와『폐허이후 임시호』를 비교해 보면 임시호에는 김정진의 희곡「汽笛불째」가 빠져 있다.[65] 신고를 통해 발행된 잡지는 발행 이후 '발매금지'나 '압수' 처분을 받으면 문제가 된 글을 고치거나 뺀 후 임시호로 발행을 했다.

이를 고려하면『백조』가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발행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호에서 3호까지 모두 외국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 2호의 경우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하기 위해 두 달이나 발행을 연기했다는 점, 또 3호에서는 30원의 돈을 주면서까지 외국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하는 것이 발행을 하고 못 하는 여부, 또 허가에 걸리는 소요 시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백조』1호와 2호의 필진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1호에「무지개나라로」를 쓴 오천석은 2호에 글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천석은 앞서 확인한『백조』

63)『官報』제3829호, 1907.7.27.
64)『신천지』,『신생활』등의 발매금지나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박현수,「『신생활』필화사건 재고」,『대동문화연구』10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357-337면 참조.
65)『동아일보』, 1924.1.8., 2면; 1924.2.4., 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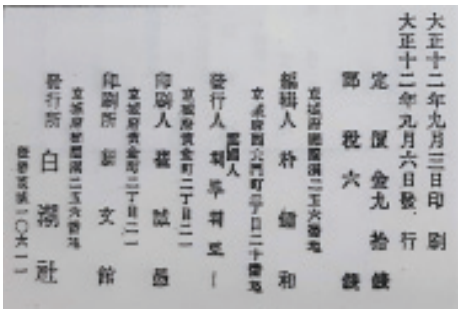
1호 발행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백조』3호에도 글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오천석의 경우는『백조』의 동인보다는 일회성으로 참여를 했다고 보는 편이 정당할 것이다.『백조』1호에서는 표지 등의 그림을 안석주가 담당했으나,『백조』2호의 목차에는 "裝畫 夕影 安碩柱 雨田 元世夏"라고 되어 있다.「六號雜記」에서 홍사용 역시 "表紙裝畵는 元雨田 氏, 裏面裝畵는 安夕影 氏의 붓"[66]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원우전 역시 2호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백조』2호에 발표된 글을 필명과 발표 당시의 제목대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백조』2호 수록 작품 목록

필명(이름)	제목	장르	비고
露雀(홍사용)	봄은 가더이다	시	
露雀(홍사용)	「民謠」(慶尙道民謠에서)	민요	
稻香(나도향)	별을안거든 우지나말걸	소설	
懷月(박영희)	쑴의나라로, 그림자를나는쏘치다, 어둠넘어로, 幽靈의 나라	시	
李相和	가을의 風景	시	
春城(노자영)	牛涎愛兄에게	서한	
春園(이광수)	樂府(高句麗之部)	시가	1호부터 연재됨.
玄鎭健	蹂躪	소설	
춘원	감사와 사죄	수필	
懷月(박영희)	感想의廢墟	수필	
朴英熙	사로메	번역	오스카 와일드 작. 1호부터 연재됨.
羅彬(나도향)	투게네프散文詩	평론	1호부터 연재됨.
月灘(박종화)	黑房祕曲	시	
盧子泳	漂泊	소설	1호부터 연재됨.
憑虛(현진건)	朦朧한記憶	수필	
朴鍾和	嗚呼我文壇	평론	
同人	六號雜記	편집후기	

66)「六號雜記」, 같은 잡지, 같은 면.

5. 늦춰진 발행의 언저리;『백조』3호


大正十二年九月三日印刷
大正十二年九月六日發行
定價金九拾錢
郵稅六錢
編輯人 朴鍾和
發行人 [illegible]
印刷人 崔誠愚
印刷所 新文館
發行所 白潮社

1980년 태학사에서 간행된 영인본에는『백조』1호의 판권간기가 3호의 자리에 잘못 붙어 있다. 위의 이미지는 필자가 1923년에 발행된『백조』3호의 판권간기를 확인한 것이다.

『백조』3호는 1923년 9월 6일 발행되었다.『백조』2호가 발행된 것이 1922년 5월이니,『백조』3호는 1년 반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나온 것이었다. 1980년 태학사에서 간행된『백조』영인본에는『백조』3호의 판권간기 자리에 1호의 그것이 잘못 붙어 있다.[67] 옆의 이미지는 필자가 확인한『백조』3호의 판권간기이다. 제대로 된 판권간기에 따르면『백조』3호의 가격은 90전으로 2호에 비해 20전 올랐으며, 분량은 210면으로 50면 정도 늘었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3장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백조』3호의「六號雜記」에는"왼 京城 안에 印刷所와 紙會社를 털어보앗스나" "마음에 드는 쓸만한 조희가 업다"며,『백조』3호를 발행하는 데 사용한 "조히 갑만이 普通 다른 雜誌에서 쓰는 조히의 三四倍나 된다"고 해, "어찌 하는 수 업서 冊 갑을 좀 높히게 하얏다"[68]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발행소는 '문화사'에서 '백조사'로 바뀌었고, 인쇄소는 2호의 인쇄소와 같은 '신문관'이었다. 같은 곳인데도 발행소의 이름을 바꾼 것은『백조』의 발행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사상 잡지『흑조』의 발행은 더욱 요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백조』1호, 2호의 편집인은 홍사용이었는데, 3호에서는 박종화가 맡았다.「六號雜記」를 참고하면『백조』1호, 2호의 편집에서도 박종화의 역할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3호에서는 발행 비용을 마련하는 데 매진했던 홍사용을 대신해 편집을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67)『백조』, 태학사, 1980, 541면.
68)「六號雜記」,『백조』3, 1923.9., 208면.

발행인은 '샌이스婦人'에서 '露國人 훼루훼로—'로 바뀌었다. 『백조』의 발행과 관련해 발행인을 외국인으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검토를 했다. 1923년 2월 20일자 박종화의 일기를 보면 처음에는 『백조』 3호도 '샌이스婦人'이 계속 발행인을 맡기로 했다는 구절이 있다.[69] 그런데 '샌이스婦人'이 맡는 것을 고사하자 30원을 지불하면서까지 '훼루훼로—'로 발행인을 바꿨다는 것이다.[70]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했을 경우 발행의 여부, 허가 시간의 소요 등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행정당국 역시 알았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이 다시 발행인을 맡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조』 3호가 발행된 것은 『백조』 2호가 발행된 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실제 『백조』 3호 편집회의가 시작된 것은 1922년 6월 20일로, 『백조』 2호가 발행된 직후였다. 『백조』 3호가 1923년 9월에야 발행된 것은 1차적으로는 경영상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박영희는 『백조』 3호는 "노작 홍사용 군의 부담으로 발행하게 되었는데, 노작은 『백조』 지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전부 은행에 저당해 놓고, 매월 얼마씩 찾아다가 썼"[71]다고 했다.



1923년 9월 9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백조』 3호 광고이다. 광고란의 1/2, 신문 전체면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광고했다는 데서 여전히 『백조』에 대한 동인들의 애착과 자부를 엿볼 수 있다.

『백조』 1호와 2호의 발행 비용은 담당했던 홍사중은 1922년 6월 12일 더 이상 『백조』의 발행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잡지를 갱신하면 다시

69) 윤병로, 앞의 책, 1992, 75면.
70) 박영희, 「草創期의 文壇側面史」; 여기에서는 앞의 책, 1997, 318면 참조.
71) 박영희, 「草創期의 文壇側面史」, 앞의 책, 1997, 297면.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다.[72]『백조』 1호와 2호의 발행 비용은 담당했던 홍사중은 1922년 6월 12일 더 이상『백조』의 발행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잡지를 갱신하면 다시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다.[73] 잡지의 성격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실제 홍사중이『백조』에서 손을 떼려했던 이유는 매호 발행 비용을 새로 지출해야 했던 데 부담을 느껴서였다.『백조』가 홍사중에 이어 홍사용 개인의 출자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잡지의 판매 대금을 회수해 다음 호를 발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백조』 3호가『백조』 2호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발행되었던 이유는 경영상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1922년 5월에서 1923년 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문학 장의 변화 역시 그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백조』 3호에 글을 발표한 홍사용, 박영희, 현진건, 나도향, 노자영, 이상화 등은『백조』 1, 2호에 글을 실었던 작가였다.『백조』 3호에서 안석주는 표지화나 장화 외에「醉」라고 하는 그림을 따로 실었다.「六號雜記」를 보면 원우전의 평론「我感片片」과 노자영의 기행문은 잡지의 분량 관계로 싣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광수는 석연치 못한 행적에다가 현정건의 비판이 문제가 되어『백조』 3호에서는 동인에서 제명된 상태였다.[74]『백조』 3호에 처음 글을 게재한 인물은 김기진이었다. 그는「한갈래의길」,「한개의불빗」,「倦怠」,「비오는날」,「연못에서서」,「가심의별」 등 6편의 시와「떨어지는 조각 조각—붓은, 마음을 쌀하—」라는 수필을 발표했다.

박종화는「六號雜記」에서 "金基鎭 方定煥 두 분 兄님이 새로이 白潮 同人이 되어주셧다"며, "遺憾됨은 方 兄의 글을 編輯 時日의 關係로 이번 號에 너치 못"[75]했다고 했다. 김기진, 방정환이『백조』 3호부터 동인이 되었는데 방정환이 글을 싣지 못한 데 반해 김기진은 시와 수필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기진이『백조』 3호에 글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72) 윤병로, 앞의 책, 1992, 37면 참조.
73) 윤병로, 앞의 책, 1992, 37면 참조.
74) 박종화, 앞의 책, 1979, 431면 참조.
75)「六號雜記」,『백조』 3, 1923.9., 208면.

하나가 있다. 1923년 7월 김기진은『개벽』에「Promeneade Sentimental」이라는 글을 처음 발표했는데, 글은 이후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싹 틔우는 효시가 된 논의로 파악된다.

그런데「Promeneade Sentimental」역시 김기진이『백조』3호에 싣기 위해 쓴 글이었다. 김기진은 "白潮 第三號에 글을 쓰라고 勸함으로 처음으로 感想文과 前에 써두었던 詩 몇 篇을 露雀에게 주었더니 五月에 編輯한 雜誌가 七月이 되도록" 나오지 못 하자" "感想文을「白潮」에서「開闢」으로 옴겨가 버리었다"[76]고 했다. 김기진은「Promeneade Sentimental」을 계기로 이후「클라르테運動의世界化」「싸르샨스對로맨・로란間의爭論」,「支配階級敎化・被支配階級敎化」등을 연이어『개벽』에 발표한다. 김기진이『개벽』의 고정 필자가 되는 계기이자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발아시키는 맹아가 되었던「Promeneade Sentimental」이『백조』3호에 싣기로 한 글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박영희는 김기진이 새롭게 동인으로 참여하면서『백조』가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발아하는 온상이 되었음을 피력한 바 있다. "金基鎭 君이 새로히 同人으로 推薦되여서 君의 作品을 揭載케 될 때를 한 形式的 契機로 同人들 가운데는 커다런 懷疑의 黑雲이 써돌앗다"[77]며, 김기진이『백조』의 변화와 균열을 가져왔던 요인이었다고 했다. 퇴폐나 허무 속에 파묻혀 있던『백조』의 문학이 필연적인 자기반성과 더불어 다음 계단에서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려 했다는 언급 역시 이와 관련된다. 김기진 역시 자신이『백조』동인이 되려고 결심한 것을 "『白潮』雜誌를 朝鮮에 있어서「種蒔く人」와 같은 것이 되도록 맨들어 보자! 이것이 나의 希望이었다"[78]고 밝혔다.

『백조』3호에 발표된 글을 필명과 발표 당시의 제목대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

76) 김기진,「나의 文學靑年時代(1)—투르게네프냐 쏘로민이냐」,『신동아』35, 1934.9., 132면.
77) 박영희,「文壇의 그 시절을 回想한다」,『조선일보』, 1933.9.15. 여기서는 앞의 책, 1997, 111면 재인용.
78) 김기진,「나의 文學靑年時代(1)—투르게네프냐 쏘로민이냐」, 앞의 잡지, 1934.9., 132면.

[표 3]『백조』3호 수록 작품 목록

필명(이름)	제목	장르	비고
露雀(홍사용)	흐르는물을붓들고	권두시	
露雀(홍사용)	그것은 모다 쑴이엇지마는, 나는 王이로소이다	산문시	
懷月(박영희)	生	소설	
露雀(홍사용)	저승길	소설	
憑虛(현진건)	한머니의죽음	소설	
月灘(박종화)	목매이는女子	소설	
稻香(나도향)	女理髮師	소설	
露雀(홍사용)	墓場	시	
夕影(안석주)	醉	그림	
李相和	나의寢室로	시	
懷月(박영희)	月光으로짠病室	시	
基鎭(김기진)	한갈래의길	시	
月灘(박종화)	生의禮讚	시	
春城(노자영)	외로운밤	시	
月灘(박종화)	'죽음'보다압흐다	시극	
懷月(박영희)	生의悲哀	평론	
基鎭(김기진)	썰어지는조각조각	수필	
露雀(홍사용)	그리움의한묵금	수필	
同人	六號雜記	편집후기	

6. 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장과『백조』의 위상

5장에서 검토한 것처럼『백조』3호는『백조』2호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나 발행되었는데, 당시 문학 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동아일보』에서는 1923년 1월 1일, 1월 3일 신문을 '문예특집'으로 꾸몄다.『백조』동인들 가운데『동아일보』'문예특집'에 게재된 글은 홍사용의 시「노래는 灰色 나는또울다」, 박종화의 시「당신이무르시면」과「幌馬車타고가랴한다」, 박영희의 시「어둠의寶幕」, 현진건의 소설「郵便局에서」, 나도향의 수필「알숭달숭 수노흔돗자리」, 3호부터 동인이 되는 방정환의 번역동화「天使」등이었다.

이들 외에 염상섭, 황석우 등의 평론, 오상순, 김낭운, 이동원 등의 시, 고한승의 동화, 양건식의 수필 등이 실렸다.[79]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개벽』 역시 1923년 1월호를 '문예특집'으로 꾸몄다. 『백조』 동인들 가운데 『개벽』 '문예특집'에 발표된 글은 박영희의 시 「僧女」와 「祈願」, 노자영의 시 「未知의나라에」, 나도향의 소설 「십칠원오십錢」, 박종화의 평론 「文壇 의一年을追憶하야」, 방정환의 평론 「새로開拓되는「童話」에關하야」, 안석주의 그림 「香+毒=?」, 「旋律」 등이었다. 『백조』 동인들 외에 김억, 변영로의 시, 김동인의 소설, 김석송의 수필, 김운정, 박종홍 등의 평론도 게재되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동아일보』와 『개벽』에서 '문예특집'에 실린 글에 원고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박종화는 『동아일보』 '문예특집'에 시 두 편를 싣고 한 편 당 5원씩 10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조선에서 처음 원고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80] 『개벽』 역시 신년호에 실은 글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했다. "원고료는 동아일보사에서 보내는 것보다 개벽사가 후"해서 "시 한 편에는 10원, 산문 1장에는 1원으로 계산해 보냈다"[81]는 것이다.[82] 원고료가 『동아일보』나 『개벽』에 휠씬 못 미쳤지만, '문예특집'을 마련하고 원고료를 지급한 것은 『동명』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은 언론사들이 '문예특집'을 기획하고 원고료를 지불했다는 이례적인 행보이다.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쓴 글이 생산-유통-소비로 이루어지는 문학시장의 상품이 되었음을 뜻했다. 물론 당시 동인지 문학이 정치, 경제적인 것과 결별한 채 배타적인 고립과 초월을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열악한 조건에서 자본적인 이익을 부정하는 가운데 상징적 특권을 얻으려는 노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고립과 초월은 '반상품성'을 자신의 상표로 선택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화의 조짐과 균열은 이미 『백조』 1, 2호에서부터 나타났다. 『백조』 2호의

79) 여기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1923.1.1. · 1923.1.3. 참조.
80) 윤병로, 앞의 책, 1992, 3 · 197면 참조.
81) 박종화, 앞의 책, 1979, 454면.
82) 박종화, 같은 책, 1979, 454면.

「六號雜記」에서 현진건은 「朦朧한記憶」이라는 변변치 못한 글을 게재했다는 것과 「蹂躪」 역시 짧은 소설을 중간에서 멈췄다는 데 관해 사과를 한다. 나도향 역시 사실이기도 또 아니기도 한 글 하나를 실었다며 짧은 소감을 적는다. 그는 『백조』 1호의 「六號雜記」에서도 쓴 지 반 년이나 지난 「졂은이의 時節」을 실은 데 대해 사과한 바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백조』에 제대로 된 글을 싣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했던 것이다. 나도향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長篇小說을 거의 맛처 가느라고 손이 空中으로 날녀갈 듯이 붓을 달니는"[83] 등 밥벌이를 하는 데 바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도향이 쓰고 있던 장편은 이후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는 『幻戱』였다. 당시 나도향은 『幻戱』를 집필하는 것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 안동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1923년 1월 경성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일을 했다. 현진건은 1920년 11월 '조선일보사'에 입사해 기자로 일했으며, 이어 1922년 9월부터는 새롭게 창간된 『동명』의 기자로 활동했다. 한편 1920년 11월 「犧牲花」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개벽』에 소설을 연이어 실었다. 『백조』 1, 2호가 발행될 1922년 전반기에도 『개벽』에 「墮落者」를 4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개벽』이 당시 잡지 가운데 높은 수준의 원고료를 안정되게 지급하는 거의 유일한 잡지였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백조』는 3호까지 발행하면서 매호 대부분의 동인들이 글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희미하나마 균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홍사용을 비롯해 박종화, 박영희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여러 개 발표하는 동인이 있는 반면 나도향, 현진건, 오천석 등과 같이 짧은 글 한, 두 개만을 싣는 동인들도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백조』 1호에서 3호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균열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확인을 한 바 있다.

1922년 후반에 이르면 『동아일보』, 『개벽』, 『동명』 등을 중심으로 문학에

83) 「六號雜記」, 『백조』 1, 1922.1., 142면.

지면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지불하는 것이 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다. 『백조』는 이와 달랐는데, 그것은 발행 비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백조』는 1, 2호의 발행 비용은 홍사중이, 또 3호의 그것은 홍사용 개인이 담당했다. 그것은 이전 호의 판매 대금을 다음 호를 발행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을 실은 동인들에게 원고료가 제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서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동인지 문학을 다른 영역과 분리시켜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다는 의의를 인정받는 한편 불과 1, 2년 만에 그 생명을 다했다는 한계 역시 지적된다. 그런데 『신청년』, 『창조』, 『폐허』, 『백조』 등 동인지가 단명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개인의 출자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운영 방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동인지의 구매자를 견인할 수 없어서였는데, 근원적으로는 독자를 비롯한 문학 장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동인지 문학이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문학 장의 문제는 양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동인지의 담당자들이 미디어를 창간할 수 있었던 것은 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문화정치라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때까지 독자나 문단 등 제대로 된 문학 장이 없었다는 이유도 작용하고 있었다. 동인지의 담당자들은 1, 2호라는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문학 장에의 편입을 용이하게 성취했다. 짧은 기간 동안 문단을 구축해 문학사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던 것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였다.

앞서 홍사중이 『백조』 3호의 발행 비용을 담당하는 데 난색을 표하자 홍사용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발행 비용을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홍사용의 재정 상태는 『백조』 2호를 발행했을 때 이미 인쇄를 마친 잡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했다는 데서 『백조』 발행에 대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도 이후 『백조』의 발행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이미 『동아일보』, 『개벽』, 『동명』 등 안정된 기반을 지닌 미디어에서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문학에 지면을 제공하고 있었다. 1923년 중반이 되면 현진건, 나도향, 오천석뿐만 아니라 박종화,

박영희, 김기진 등도 『개벽』에 고정적인 지면을 확보한다. 또 박영희, 김기진은 '개벽사'와 '매일신보사'에 입사해 문예 면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문학 장의 변화가 『백조』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변화를 추동하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백조』였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

문학 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23년 들어서 『동아일보』, 『개벽』, 『동명』 등이 '문예특집'을 마련하고 원고료를 지급한 일이었다. 『동아일보』 '문예특집'에 글을 실은 문인 가운데 『백조』 동인은 홍사용, 박종화, 박영희, 현진건, 나도향, 방정환 등이었고, 『개벽』에 발표한 『백조』 동인은 박영희, 노자영, 나도향, 박종화, 방정환, 안석주 등이었다. '문예특집'에 글을 실은 작가들 가운데 『백조』의 동인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데, 그것은 『동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학 장의 변화에 『백조』가 영향을 미친 것은 '문예특집'에 한정되지 않았다. 박종화는 1923년부터 『개벽』에 글을 발표하다가, 1924년에 이르면 『개벽』의 〈월평〉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新春創作評」(1924.3.), 「文壇放語」(1924.5.), 「甲子文壇縱橫觀」(1924.12.) 등을 통해 『개벽』의 〈월평〉을 이어갔다. 『개벽』을 거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연재소설 삽화를 담당했던 안석주 역시 그 출발은 『백조』였다. 이들의 진로는 『백조』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문단의 승인을 얻어 문명을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겹쳐진다.

김기진이 1923년 7월 「Promeneade Sentimental」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개벽』의 고정 필자가 되었던 과정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박영희 역시 1924년부터 「체호뿌戱曲에나타난 露西亞幻滅期의苦痛」, 「自然主義에서 新理想主義에 기우러지려는朝鮮文壇의最近傾向」(1924.2), 「襤褸한봄」(1924.4), 「結婚前日」(1924.5), 「「惡의花」를심은=뽀드레르論」(1924.6) 등의 글을 『개벽』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영희는 1925년 1월 『개벽』 문예부 주임이 되어 『개벽』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정초해 나갔다. 기존의 문학사적 접근에서 『백조』가 프로문학의 온상 역할을 했다는 서술은 이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 글이 분명히 하려 했던 것은 그것 역시 『백조』가 했던 역할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개벽』
『公報』
『官報』
『동명』
『문우』
『백조』
『사상계』
『서광』
『신동아』
『신청년』
『장미촌』
『창조』
『폐허』

2. 단행본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윤식, 『박영희연구』, 열음사, 1989.
김재용・하정일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박영희,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 Ⅱ, 영남대 출판부, 1997.
박종화, 『靑苔集』, 영창서관, 1942.
_____, 『歷史는 흐르는데 靑山은 말이 없네』, 三慶出版社, 1979.
백 철, 『朝鮮新文學思潮史(近代編)』, 수선사, 1948.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미공개월탄일기평설』, 성균관대 출판부, 199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현대문학사, 1957.

松本三之介・山室信一, 『言論とメディア』(日本近代思想大系11), 岩波書店, 1990.
伊藤整, 고재석 역, 「근대 일본인의 발상의 여러 형식」, 『근대 일본인의 발상형식』, 소화, 1996.
中村光夫, 유은경 역, 『일본의 근대소설』, 동인, 1995.

3. 논문

김영범, 「玄鼎健의 생애와 민족혁명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김창록,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박현수,「문인—기자로서의 현진건」,『반교어문연구』42, 반교어문학회, 2016.
_____,「『신생활』 필화사건 재고」,『대동문화연구』10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_____·홍현영,「1920년대 초기『조선일보』「문예란」 연구—발굴과 위상의 구명」,『민족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이경돈,「동인지『문우』와 다점적 혼종의 문학」,『상허학보』28, 상허학회, 2010.
정우택,「『문우』에서『백조』까지」,『국제어문』47, 국제어문학회, 2009.
최원식,「백조의 양면성」,『백조』 겨울호, 노작홍사용문학관, 2020.
한기형,「잡지『新青年』과 경성청년구락부」,『서지학보』26, 한국서지학회, 2002.

【Abstract】

The Delayed Issue of *White Wave*, the coterie magazine, and the early 1920's Korean Literary Field

Park Hyun-Soo*

The literary history mainly defines *White Wave* (백조) in two ways. One is that *White Wave* was a literary coterie magazine following *Creation* (창조) and *Ruin* (폐허). Another is that *White Wave* was a breeding ground of 'Proletarian Literature.' Park Jong-Hwa (박종화) met Jung Baek (정백) and Hong Sa-Yong (홍사용) in Hui-Moon high school (휘문고보), and they put their heart into literature. Since then, Park Jong-Hwa, Jung Baek, and Hong Sa-Yong had been active in *Dawn Light* (서광) and *The Friends of Writing* (문우). When *The Friends of Writing* was published, Na Do-Hwang (나도향) and Park Yong-Hee (박영희) visited Park Jong-Hwa. The first issue of *White Wave* was when there was no space for literary works to be published. You can feel the pride of *White Wave*'s members in high-quality paper and advanced binding. Every issue of *White Wave* was published in the name of foreigners. There was no separate provision for foreign publishers in the Publishing Law. The third issue of *White Wave* was published after a year and a half. The delay in publication was primarily due to management problems.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literary field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issue of *White Wave*. Newspapers and magazines prepared a 'literary special' and paid for the manuscript. The change in the literary field made it difficult to publish *White Wave*, but paradoxically, *White Wave* drove that change.

Keywords: *White Wave* (백조), literary coterie magazine, literature field, *The Friends of Writing* (문우), binding, publisher, publishing law, manuscript fee.

접수일: 2022.09.30.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14.

* Honorary Professor, Sungkyunkwan Univ.